

## 국민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김형민<sup>1</sup>

<sup>1</sup>군포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 Structural Relationship of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National Leisure Life

Kim, Hyeong-Min<sup>1</sup>

<sup>1</sup>Gunpo Industry Promotion Agency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al influence of factors on leisure satisfaction that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o derive theoretically valid research results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knowledge in related research fields and provide insight into how to improve leisure life. To this end, the "2020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used to extract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leisure life and verify them with the PLS-Structure Equation Modeling (PLS-S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roved that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capital are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leisure consumption, leisure policy, and leisure satisfaction. Al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except for the path between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polic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and 10 out of 12 research hypotheses presented in this study were adopt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multi-group analysis, the 4050 generation with high income levels showed higher leisure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than the 2030 generation, and the 2030 generation was significantly negative for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nd verified a research model that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people's leisure life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leisure.

**Key words :** leisure attitude, leisure capital, leisure consumption, leisure policy, leisure satisfaction

주요어 : 여가태도, 여가자본, 여가소비, 여가정책, 여가만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yeong-Min

E-mail: bossmin90@gmail.com

Received: April, 21, 2022 Revised: June, 07, 2022 Accepted: June, 17, 202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도약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전 세계에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일곱 번째의 '30-50클럽' 국가가 된 것이다. 또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 지위가 변경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에 대처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원세연, 2021).

그러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고령화, 자살률,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부터 회원국의 삶의 질을 진단하기 위해 조사해 온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ve Index; BL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0개 조사 대상국 중에 2012년에 24위였으나 꾸준히 하락하며 2018년에는 30위로 평가되었다. BLI지표는 11개의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여 평가되었는데 특히 일과 삶의 균형(37위), 건강(36위), 삶의 만족(33위) 등의 영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OECD, 2020).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여가와 삶보다는 일을 우선시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에 기인한다. 과거 여가활동은 생산력 향상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사회 전반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향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가를 위해 기꺼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서리나와 오치욱, 2016). 여가생활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핵심요인이며, 따

라서 여가 문화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차재민, 2018).

이에 정부는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여가향유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김민규와 박수정, 2018). 또한 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여가참여기반 구축, 여가접근성 개선, 여가생태계 확대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하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포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처럼 개인의 여가를 법령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가의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가 관련 연구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매년 50여 편 발표되었던 관련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100여 편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고, 정부의 여가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에는 매년 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22). 이는 삶의 질과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 정책 시행의 영향이 학계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가 관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정책연구와 실증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연구는 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국민, 청년, 노인, 가족, 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 맞추어 여가 정책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 왔다(노용구, 2007; 송성섭, 김용찬과 김민규, 2015; 원형중, 2005; 이수현, 2017; 전형상, 2017). 실증연구의 경우 여가활동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개인의 만족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사례가 많았다.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스포츠와 여행과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들이

여가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김양례, 2009; 장순용과 김송희, 2003; 최성훈과 이연주, 2005; Ragheb & Griffith, 1982). 또한 여가활동의 정도 측면에서 여가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되어 왔다(구희곤과 임수원, 2008; 김경식과 이루지, 2011; 이종길, 1992).

하지만 일부 여가 관련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어서 후속 연구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권현재와 박근수, 2009; 박병국, 2001; 이정순, 2005; 조성수, 2008). 이처럼 관련 연구에서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간의 인과관계가 통념과 다르게 밝혀진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한정된 연구의 대상 또는 특정 지역의 영향, 측정 문항의 설계 또는 표집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 지역, 유형, 표집 방법 등에 의한 편차를 극복하고, 전 국민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한 전국단위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가에 대한 개인에 인식을 나타내는 여가태도와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인 여가자본 두 가지를 핵심 영향요인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실제 여가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여가소비와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여가정책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종속변수인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으로 타당한 성과요인 모형을 검증하여 관련 연구 분야의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고, 여가 정책 담당자들에게 국

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정 대상과 지역에 한정된 표본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결과와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실시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고, 통계분석은 영향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PLS-구조방정식모델링(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을 채택한다.

## 3.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가태도, 여가자본, 여가소비, 여가정책을 선정한다.

여가태도는 개인이 여가활동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적, 인지적, 행동의향적 반응이며,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 중요도로 정의될 수 있다(김선미, 김은하 및 정여주, 2019; Ryan & Boifield, 1975). 여가를 노동과 구분하여 잉여시간으로 치부했던 사회문화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여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인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의도와 행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Ajzen & Fishbein, 1977), 여가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개인은 여가를 삶의 필수 영역으로 인식하고, 여가소비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태도뿐 아니라 여가만족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결과도 검증된 바 있다(김선미 등, 2019; 정영금과 윤소영, 2018). 또한 국민의 여가요구 확대와 변화에 기인하여 여가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확산되고 있고(노용구, 2007),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정책이나 국가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의 선행연구 결과는 여가태도와 여가정책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김은수, 정득

및 이종석, 2020; 정한경과 문승제, 2013).

여가자본은 ‘개인의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자원 체계’로 정의되며, 문화, 경제, 건강, 환경 자원으로 구성된다(최순화와 최숙희, 2012).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여가에 대한 인식과 사회계층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여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성장 과정에서 풍부한 교육의 기회에 노출되는 계층이 높은 수준의 문화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면(Bourdieu, 1984), 문화자본과 여가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자본은 소비자의 금전적·재정적 자원으로, 소득은 경제자본을 설명하는 대표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유은영과 진현정, 2016). 학력과 소득으로 측정될 수 있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은 여가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결국 여가자본은 궁극적으로 여가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 결과로 학력수준 또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정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은수 등, 2020; 한진오, 정득 및 이종석, 2019).

여가소비는 여가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시간, 금전 등 비용을 치르는 행동을 의미한다(최순화, 2021a). 여가는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자 소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여가활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여가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소비는 여가활동을 양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적절한 여가소비는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김경식과 이루지, 2011).

여가정책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개하는 제도적, 재정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차재민, 2018).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여가시간 및 지출의 증대를 위한 방책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여가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관리의 노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이명우, 홍윤미 및 윤기웅, 2016). 결국 국가의 선도적인 여가정책은 여가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여가만족에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한진오 등, 2019).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결과이며 여가경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만족도를 의미한다(최순화, 2021a). 여가를 삶의 필수 영역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는 여가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여가만족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가만족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경식과 이루지, 2011; 김정운과 이장주, 2009; 이종길, 1992; 장순용과 김송희, 2003; Haworth & Lewis, 2005; Spiers & Walker, 200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12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별로 여가생활과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연구 문제 1을 추가로 제시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가설 1: 여가태도는 여가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여가태도는 여가정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여가소비는 여가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여가자본은 여가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여가자본은 여가정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여가자본은 여가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여가정책은 여가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여가소비는 여가태도와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정(+)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10: 여가소비는 여가자본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정(+)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11: 여가정책은 여가태도와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정(+)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12: 여가정책은 여가자본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정(+)으로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1: 수립된 연구가설의 영향관계는 2030세대와 4050세대 간에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설정된 가설에 기초하여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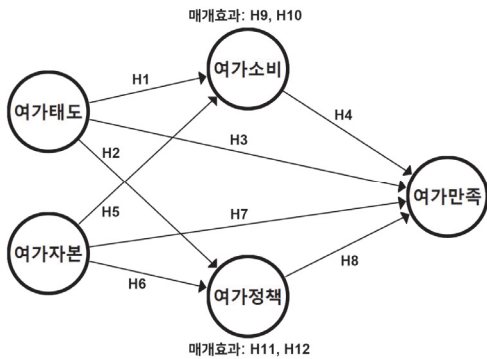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 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9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남녀 10,088명의 유효한 응답을 취합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설 검정을 위한 자료로 투입하였고, 2030세대와 4050세대를 각각 추출하여 다집단분석을 통해 제시된 연구문제를 검토하였다.

###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여가태도, 여가자본, 여가소비, 여가정책, 여가만족과 관련된 측정 자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추출하였다.

여가태도는 여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귀하는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여가활동이 귀하의 삶(행복도, 건강, 가족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두 설문항으로 7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여가자본은 응답자의 최종 학력과 월평균 소득의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최종 학력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4단계로 구분되었고,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의 7 단계로 분류하여 측정되었다. 여가소비는 통상 여가시간과 비용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TV 시청, 인터넷 검색, 산책 등의 소극적 여가활동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가시간을 제외하고 여가비용을 단일항목으로 채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여가를 위해 지출한 한달 평균 여가비용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여가정책은 여가정책의 만족도를 7점 척도로 묻는 ‘다양한 여가시설’,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여가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배치’, ‘보다 나

은 여가생활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의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만족은 '귀하께서는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7점 척도)'와 함께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10점 척도)'의 두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PLS-구조방정식모형 분석도구인 SmartPLS v3.3.6을 활용하였다. PLS-구조방정식 분석은 자료의 정규성 여부에 관대하고, SPSS Amos와 같은 CB-구조방정식과 비교하여 탐색적 연구모형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변수 당 측정항목의 개수에도 유연하고, 반영적(reflective) 측정모형 뿐 아니라 형성적(formative) 측정모형도 지원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도구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Hair, Hult, Ringle, & Sarstedt, 2017; Ringle, Wende, & Becker, 2015).

### III. 결과

####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표본 10,088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남녀 성별은 비슷한 빈도로 집계되었다. 연령대는 4050세대가 가장 많았고, 2030세대가 그 다음으로 분포되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고졸, 초졸 이하, 중졸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300~400만원 대가 가장 많았으며 6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계층도 17.5%로 그 다음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 2.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측정모형의 평가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외부적재치는 수용기준 0.7 이상, 평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5,003	49.6
	여성	5,085	50.4
연령	15-19세	619	6.1
	20대	1,536	15.2
	30대	1,644	16.3
	40대	1,888	18.7
	50대	1,858	18.4
	60대	1,377	13.6
	70세 이상	1,166	11.6
학력	초졸 이하	1,101	10.9
	중졸	1,067	10.6
	고졸	4,039	40.0
	대졸 이상	3,881	38.5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80	9.7
	100~199만원	923	9.1
	200~299만원	1,405	13.9
	300~399만원	1,824	18.1
	400~499만원	1,782	17.7
	500~599만원	1,407	13.9
	600만원이상	1,767	17.5
합계		10,088	100.0

균분산추출(AVE)은 수용기준 0.5 이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확보되었다(Bagozzi, Yi, & Phillips, 1991; Fornell & Larcker, 1981; Hair, Ringle, & Sarstedt, 2011).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

표 2. 측정모형의 평가결과

변수	측정항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외부적재치	AVE	CA	rho_A	CR
		>0.7	>0.5	>0.6	>0.7	>0.7
여가 태도	att1	0.939	0.878	0.861	0.862	0.935
	att2	0.934				
여가 자본	edu	0.898	-	-	1.000	-
	income	0.798				
여가 소비	ln_cost	1.000	1.000	1.000	1.000	1.000
여가 정책	policy1	0.860	0.728	0.907	0.913	0.930
	policy2	0.874				
	policy3	0.841				
	policy4	0.862				
	policy5	0.829				
여가 만족	stsfcn	0.802	0.707	0.657	0.607	0.828
	happy	0.877				



표 5. 가설검정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검정 결과
H1	여가태도 → 여가소비	0.122	0.010	12.609**	채택
H2	여가태도 → 여가정책	0.009	0.011	0.852	기각
H3	여가태도 → 여가만족	0.283	0.010	28.248**	채택
H4	여가소비 → 여가만족	0.072	0.010	6.871**	채택
H5	여가자본 → 여가소비	0.310	0.011	29.479**	채택
H6	여가자본 → 여가정책	0.109	0.010	10.503**	채택
H7	여가자본 → 여가만족	0.094	0.011	8.436**	채택
H8	여가정책 → 여가만족	0.165	0.010	16.418**	채택
H9	태도 → 소비 → 만족	0.009	0.001	5.905**	채택
H10	자본 → 소비 → 만족	0.022	0.003	6.688**	채택
H11	태도 → 정책 → 만족	0.002	0.002	0.846	기각
H12	자본 → 정책 → 만족	0.018	0.002	9.178**	채택

\*\*  $p < 0.01$

총 12개의 가설경로 중에 가설 2의 직접효과와 가설 11의 간접효과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아 두 가설은 기각되었다. 나머지 9개의 가설경로는 모두 유의수준 0.01로 가설들이 채택되었다.

또한 제시된 연구문제 1을 검토하기 위해 2030세대(n=3,180)와 4050세대(n=3,746) 간의 다집단분석(PLS-MGA)를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총 12개의 가설경로 중 5개의 경로(가설 2, 5, 7, 10, 11)에서 통

표 6. 다집단분석 결과 (2030세대 vs 4050세대)

가설	경로	$\beta$ (2030)	$p_{\text{값}}$ (2030)	$\beta$ (4050)	$p_{\text{값}}$ (4050)	신뢰도 (2030 vs 4050)
H1	태도 → 소비	0.154	0.000	0.147	0.000	0.792
H2	태도 → 정책	-0.044	0.019	0.008	0.666	0.046
H3	태도 → 만족	0.265	0.000	0.244	0.000	0.406
H4	소비 → 만족	0.059	0.001	0.088	0.000	0.219
H5	자본 → 소비	0.062	0.004	0.197	0.000	0.000
H6	자본 → 정책	0.086	0.000	0.108	0.000	0.358
H7	자본 → 만족	0.084	0.000	0.190	0.000	0.000
H8	정책 → 만족	0.166	0.000	0.158	0.000	0.757
H9	태도 → 소비 → 만족	0.009	0.002	0.013	0.000	0.360
H10	자본 → 소비 → 만족	0.004	0.031	0.017	0.000	0.000
H11	태도 → 정책 → 만족	-0.007	0.026	0.001	0.669	0.045
H12	자본 → 정책 → 만족	0.014	0.000	0.017	0.000	0.534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IV. 논의

본 연구의 영향요인별 세부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태도는 여가소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beta=0.122, p<0.01$ ), 여가만족에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0.283, p<0.01$ ), 가설 1,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여가의 필수성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할수록 여가소비가 늘어나고 여가에 대한 만족감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김선미 등(2019), 정영금과 윤소영(2018), 최순화(2021a)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여가태도의 여가정책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beta=0.009, p>0.05$ )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는 유사한 맥락에서 인과관계를 도출했던 김은수 등(2020), 정한경과 문승제(2013)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여가 고관여층이 여가를 더 소비하고 여가생활에 만족하지만 정부의 여가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용구(2007)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국민의 권리의식과 정부정책 간의 괴리 즉, 급속도로 높아진 국민의 여가의의식을 정부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여가자본은 여가소비( $\beta=0.310, p<0.01$ ), 여가정책( $\beta=0.109, p<0.01$ ), 여가만족( $\beta=0.094, p<0.01$ )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 가설 6, 가설 7은 모두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가자본은 문화자본의 대용치(proxy)인 교육수준과 경제자본의 대용치인 소득수준으로 측정하였는데,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여가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건강, 경제, 문화 자본이 활동형 여가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순화와 최숙희(2012)의 연구결과와 부합하고, 소득과 학력이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식과 이루지(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력 수준 또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여가정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수 등(2020), 한진오 등(2019)의 연구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셋째, 매개변수인 여가소비는 여가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서 가설 4는 채택되었고( $\beta=0.072$ ,  $p<0.01$ ). 여가태도와 여가만족 간의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 $\beta=0.009$ ,  $p<0.01$ ), 여가자본과 여가만족 간의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 $\beta=0.022$ ,  $p<0.01$ )가 나타나 가설 9, 가설 10은 채택되었다. 여가소비는 여가 활동을 대변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여가생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여가활동의 동기가 될 수 있는 태도와 자본을 매개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 행동학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태도, 의도, 행동, 만족의 일련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진경과 김민주, 2011).

넷째, 매개변수인 여가정책은 여가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서 가설 8은 채택되었고( $\beta=0.165$ ,  $p<0.01$ ), 여가자본과 여가만족 간의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 $\beta=0.018$ ,  $p<0.01$ )가 나타나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이는 여가생활의 여건이 좋은 개인이 정부의 여가정책에 만족을 느끼고, 결국 여가생활 전반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으로 여가정책의 효용성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태도와 여가만족 간의 매개효과( $\beta=0.002$ ,  $p>0.05$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이는 앞서 가설 2가 기각되었던 기제가 이 경로에서도 발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12개의 가설경로 중에서 여가태도와 여가정책 간의 경로가 포함된 가설 2와 가설 11이 기각된 것이다.

다섯째, 세대간 다집단분석에서 여가정책에 대한 여가태도의 영향(가설 2)은 2030세대에서는 음(-)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4050세대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30세대가 인식하는 여가의 중요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충하는 결과이다. 즉 2030세대는 여가생활이 소중하다고 느낄수록 정부의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반면 4050세대는 이 가설경로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가설 11의 매개효과 경로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세대 간의 비교 연구에서 2030세대는 공무원과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강내원, 2013),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김철수 및 박병래, 2003)와 맥락적으로 부합하는 결과이다.

여섯째, 여가소비에 대한 여가자본의 영향(가설 5)은 두 집단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4050세대가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만족에 대한 여가자본의 영향(가설 7)도 앞의 경우와 같이 두 집단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4050세대가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자본은 최종 학력과 월평균 소득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 전체 세대의 최종 학력 평균값은 3.031이었는데, 2030세대는 3.630, 4050세대는 3.378로 오히려 2030세대의 평균 학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전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4.367(표준편차=1.886, 첨도=-1.000, 왜도=-0.0336), 2030세대 4.812(표준편차=1.669, 첨도=-0.701, 왜도=-0.336), 4050세대 4.865(표준편차=1.651, 첨도=-0.589, 왜도=-0.423)로 4050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값뿐 아니라 표준편차, 첨도, 왜도 값을 비교해 보면, 4050세대가 완만하게 고소득 쪽으로 더 치우친 분포를 나타낸다. 세대간 학력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는 여가

자본의 주요인이 학력보다 소득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4050세대가 여가를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높게 만족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결과는 가설 10의 매개효과 경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했던 선행연구에서 소득과 학력이 여가소비와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많았는데(김경식과 이루지, 2011; 김선미 등, 2019; 최순화, 2021a, 2021b), 기존 연구와 달리 두 측정항을 형성적(formative) 측정모형으로 분석한 본 연구결과로 학력보다는 소득이 여가자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 V. 결론

본 연구는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성과요인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연구 분야의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고, 여가 정책 담당자에게 국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및 통찰력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가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추출하고 PLS-구조방정식 모형(PLS-SEM)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태도와 여가자본은 여가소비, 여가정책,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다만 여가태도는 여가정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속도로 높아진 국민의 여가의식을 정부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는 공급자 관점의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여가자본은 여가의 소비와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다집단분석 결과에서 여가자본을 구성하는 두 하위요인 중 학력보다 소득이 여가의 소비와 만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의 여가생활 환경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 여가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충분한 여가자본을 가진 계층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여가소비의 장을 제공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들도 일-생활 양립에 기반한 양질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세대 간의 다집단분석 결과 2030세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공포된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은 최근까지 일부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영역의 여가 정의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2030세대들에게 적용 가능한 신규 여가 또는 세부 여가가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더욱 다양한 여가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표본으로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연구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장점이 있었던 반면 연구 의도에 맞는 풍부한 측정항목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세대별뿐 아니라 성별 다집단분석을 수행했다면 보다 많은 연구 시사점을 도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셋째, 능동적인 여가소비의 정도를 선별하기 위해 여가시간을 제외한 여가비용 단일항목을 대용치(proxy)로 채택했는데, 비용이

별로 소요되지 않는 스포츠 참여활동 등에 대한 고려에 한계점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 임하면 보다 진일보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내원(2013). 세대집단의 매체이용과 사회자본이 제도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2030세대와 4050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4), 5-42.
- 구희곤, 임수원(2008). 사관생도의 여가스포츠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2), 105-114.
- 권현재, 박근수(2009). 모험관광 참가와 여가몰입,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 376-387.
- 김경식, 이루지(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국가통계자료 이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1), 424-433.
- 김민규, 박수정(20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 제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2), 11-23.
- 김선미, 김은하, 정여주(2019). 1인 가구의 여가태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0(4), 765-780.
- 김양례(2009). 여가활동 유형과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한 삶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0(3), 553-566.
- 김은수, 정득, 이종석(2020). 공공 여가시설 만족과 여가정책 만족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여가인식의 조절효과: 국민여가활동조사(2018)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4(2), 591-616.
- 김정은, 이장주(2009).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1-15.
- 노용구(2007). 여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0, 221-230.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 박병국(2001). 여가스포츠 참여가 여가만족 및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 1205-1214.
- 박진경, 김민주(2011). 여가활동유형별 여가태도와 여가행동 간의 관계: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관광레저연구**, 23(4), 387-406.
- 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김철수, 박병래(2003).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요인: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한국정책학회보**, 12(3), 199-225.
- 서리나, 오치옥(2016). 일을 할 것인가, 여가를 즐길 것인가: 30대~50대 기혼자의 향후 일-여가 시간투자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관광학연구**, 40(8), 63-82.
- 송성섭, 김용찬, 김민규(2015). 가족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야외레크리에이션 활동 대상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3(4), 57-77.
- 원세연(2021). 대한민국 달라진 국제 위상...지표로 살펴보니. **정책브리핑**. Retrieved 2022.02.21., fr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061>.
- 원형중(2005).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여가정책.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9(3), 78-96.
- 유은영, 진현정(2016).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6(7), 79-103.
- 이명우, 홍윤미, 윤기웅(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0(2), 264-287.
- 이수현(2017). 청년 여가정책의 필요성 연구: 청년 세대의 여가자원 분포 특성 검토를 통해

- 여. *여가학연구*, 15(3), 69-71.
- 이정순(2005). 관광활동, 관광·여가만족, 웰빙지각과의 관계. *관광연구*, 19(3), 75-99.
-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순용, 김송희(2003).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4, 17-30.
- 전형상(2017). 노인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노인정책 분석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6(1), 553-571.
- 정영금, 윤소영(2018). 1인가구의 세대별 여가행태 분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2(4), 1-15.
- 정한경, 문승제(2014). 지각된 건강·여가·온라인커뮤니티활동에 의한 친구·가족관계 향상이 긍정적 국가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8, 653-666.
- 조성수(2008). 노인의 레크리에이션 참가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차재민(2018). 국민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에 관한 연구: 수정된 IPA를 활용하여. *관광레저연구*, 30(5), 209-223.
- 최성훈, 이연주(2005).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분석: 국가통계자료 이용. *한국체육학회지*, 44(1), 567-575.
- 최순화(2021a). 1인가구의 여가태도, 여가소비, 여가만족의 영향관계 분석: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3(6), 151-165.
- 최순화(2021b). 기혼여성 직장인의 문화예술 소비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경제연구*, 18(3), 25-46.
- 최순화, 최숙희(2012). 여가자본 연구와 정책과제: 3050 세대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9(1), 177-193.
- 한국학술지인용색인(2022). 관련 학술지 검색 결과. Retrieved 2022.01.31., from <https://kci.go.kr>.
- 한진오, 정득, 이종석(2019). 공공여가시설만족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가정책만족의 매개효과. *여가학연구*, 17(2), 61-85.
- Ajzen, I., & Fishbein, M.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 Bagozzi, R. P., Yi, Y., & Phillips, L. W. (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3), 421-458.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 ed.).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onbach, L. J. (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3), 297-334.
- Dijkstra, T. K., & Henseler, J. (2015). Consistent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MIS Quarterly*, 39(2), 297-316.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eisser, S. (1974). A predictive approach to the random effect model. *Biometrika*, 61(1), 101-107.
-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 (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air, J. F., Risher, J. J., Sarstedt, M., & Ringle, C. M. (2019). When to use and how to report the results of PLS-SEM. *European Business Review*, 31(1), 2-24.

-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17).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aworth, J., & Lewis, S. (2005). Work, leisure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3(1), 67-79.
-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5).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3(1), 115-135.
- OECD (2020). *Better life index*. Paris: OECD Publishing.
- Ragheb, M. G., & Griffith, C. A.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295-306.
- Ringle, C. M., Wende, S., & Becker, J. M. (2015). *SmartPLS 3*. Bönningstedt: SmartPLS GmbH.
- Ryan, M. J., & Boifield, E. H. (1975). The Fishbein extended model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Sociological Review*, 2(2), 118-136.
- Spiers, A., & Walker, G. J. (2008). The effects of ethnic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n happiness, peacefulness, and quality of life. *Leisure Sciences*, 3(1), 84-99.
- Stone, M. (1974). Cross-validatory choice and assessment of statistical predic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6(2), 111-133.
- Werts, C. E., Linn, R. L., & Jöreskog, K. G. (1974). Intraclass reliability estimates: Testing structural assumptio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4(1), 25-33.